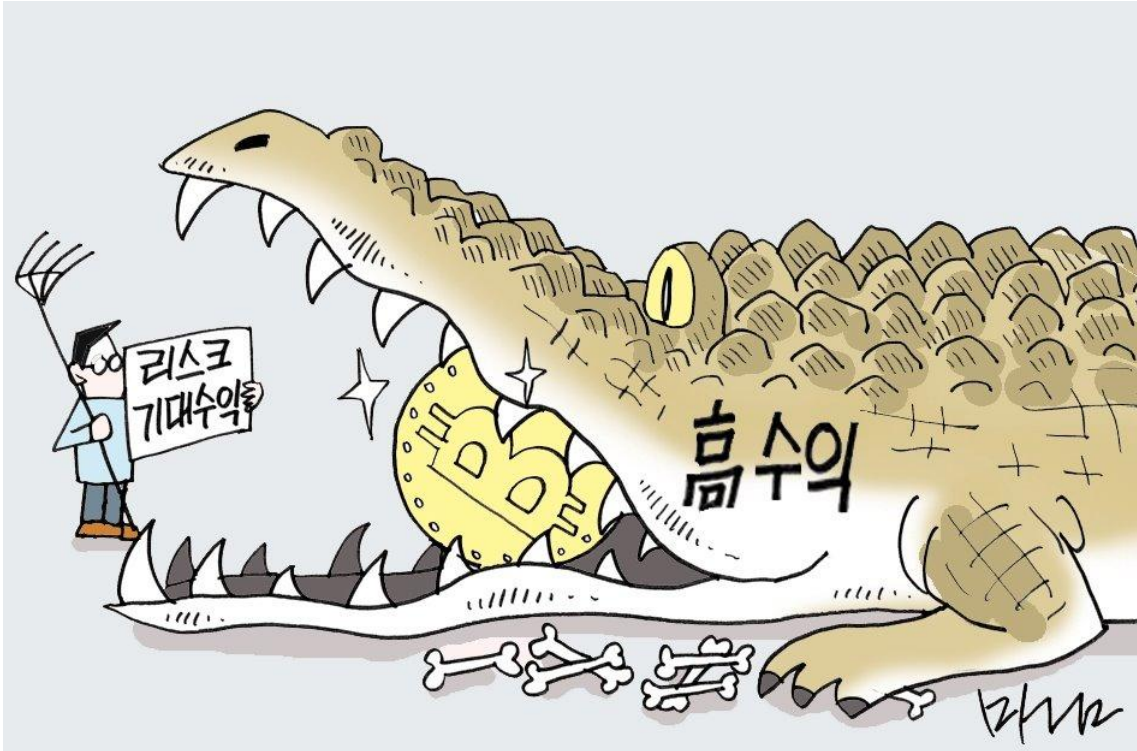


## 가상통화 열풍 속에서 본 투자의 정석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 - 26]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금광 캐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사건) 때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는지 알아? 금광 주인들이나 금을 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채굴장비 팔았던 상인들이었어.” 투자분야 세계적 권위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제러미 시걸 교수의 강연과 책자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표현과 가상화폐를 과거 ‘금본위 제도’와 비교하는 얘기를 들으며 새삼 19세기 골드러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근거한 가상통화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700종 이상의 가상화폐가 개발되고 거래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금년 6월말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상위5종의 시가총액이 114조 수준에 달합니다. 금년 1월 대비 매일 평균 37% 폭등한 셈이지만 최근에는 급락세가 반복되며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010년 거래 개시 시점에 비하면 수천 배 올랐으나 지난 5월 최고치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시세입니다.

가상화폐의 특징은 기존 지급수단과 달리 별도의 발행기관이 없이 발행량과 발행규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 고정되고 거래원장(Ledger)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독자적인 통화단위를 사용하고 교환비율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면서 누구라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대표적 장점은 간편한 지급 및 자금이체, 거래비용감소, 그리고 익명성이 꼽힙니다. 반면, 높은 가격변동성, 개인정보 누출 등 보안위험과 돈세탁 및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큼니다.

‘현금없는 경제체제’로 가는 오늘날 금융권 핀테크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는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등 석학이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등 월가(街) CEO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융은 대표적 ‘규제’산업이라고 볼 때,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면 결국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상통화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면에서 황금이나 국제준비통화인 IMF 특별인출권(SDR) 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대박 가능성 있다고 다 투기는 아니지요.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세계적 기업인과 투자자를 만났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입니다. 여러해 전 손회장과 면담에서 경영 철학과 함께 중국 알리바바 투자 배경설명도 직접 들었는데요. 알리바바에 200억 원을 투자한 후 14년 만에 뉴욕증시 상장으로 60조원의 평가차익, 3천배 수익을 기록한 전설적인 얘기죠. 그는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전공을 살려 1981년 소프트뱅크 창업 시, 회사이름에 ‘Soft’의 정보통신(ICT)과 ‘Bank’의 금융투자 개념을 융합했고 전자상거래를 예견합니다. 대박은 운도 따르지만 확률을 높이려면 남다른 통찰력을 키워야한다는 의미의 에피소드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아무리 복잡한 투자라도 ‘리스크’와 ‘기대수익’ 두 변수로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합리적 투자란 리스크(위험도 또는 가격변동성)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해야합니다. 종종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애매하고 버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투자 대상, 규모, 타이밍은 각자의 자산, 정보력,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감안한 선택이 정도(正道)입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때로는 통하지만 과열시장에서의 추격매수는 실패하기 십상이죠. 하루 30%를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비정상적 가격변동은 경고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